■문화도시 서귀포시 '노지문화'를 말하다 <상>성과와 과제

문화도시 선정 견인… 체감 부족 등 과제도

코로나19 위기 넘어선 문화 향유 전국 '우수'
지난해 25억 투입 197개 프로그램 운영 성과
"체감도 한계… 시민주도형 사업 추진은 과제"

문화도시 서귀포시가 '노지(露地)문화'를 지향하며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충족시키고, 앞으로 지역의 문화·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법정문화도시'를 대상으로 1년차(2020년도)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가 '우수 도시'로 선정되며 전국의 수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지난해 문화도시의 1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올해 주요 사업 및 지향점을 2회에 걸쳐 진단한다.

▶고유의 '노지문화' 싹을 틔우다= 서귀포시는 2019년 12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그동안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이중섭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 산책길 조성, 문화예술디자인 시장 운영, 옛 관광극장 재생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서귀포시만의 색을 입힌 문화시책을 전개했다.

또한 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생태문화콘텐츠 프로젝트 운영, 마을문화 발굴 등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위해 34억8800만원을 투입해 143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예비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여기에 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잠재성을 인정받으면서 법정문화도시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특히 시는 문화도시의 비전으로 읍·면 5곳을 비롯한 행정리 76곳, 그리고 동지역의 자연마을 29곳을 총괄하며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문화도시 비전으로 정해 지역의 특색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며 결실을 맺고 있다.

▶문화도시 선정 1년 결과 '명암'= 시가 지난해 법정문화도시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각종 행사성 프로그램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와 워킹그룹으로 활동했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냈다. 당초 계획했던 시민대원탁, 축제, 박람회 등의 대규모 행사를 소규모 저밀도 분산형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선회해 진행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수를 달랬다.

실적도 적지 않다. 시는 지난해 25억7100만원을 투입, 5개 분야·34개 세부사업을 통해 197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화기획자와 예술가 538명, 주민 2만2728명이 참여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노지문화 씨앗' '창의문화 농부' '미래문화 텃밭' 등의 사업을 벌이며 시민문화 활성화와 마을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시도했다. 마을삼춘 그림이야기책, 우리동네 호끌락 문화학교, 노지문화 탐험대, 책방데이, 악기도서관 운영 등의 다양한 결과를 얻어냈다.

다만 시민들의 전반적 참여가 부족해 시민체감도가 낮았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지난해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2%가 서귀포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알고 있는 반면 27.8%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며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사업은 큰 과제로 남았다. 백금탁기자

제주용암해수 활용 가치 발굴 '맞손'

제주테크노파크·(주)오리온 공동 보조 협약

제주테크노파크와 (주)오리온이 제주의 새로운 산업화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용암해수의 활용 가치 발굴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제주테크노파크(JTP)는 용암해수 산업단지 인프라와 (주)오리온 제주 용암수가 해마다 7000만원을 출연하는 연구지원금을 활용하여 용암해수에 대한 기능성 연구와 취수층 지질 및 용암해수 부존량 조사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용암해수 활용과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지난 12일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1차 연구지원금을 기탁했다. >>사진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는 그동안 용암해수 산업화 소재 생산과 가공원료의 공급, 시제품 생산과 연구분석 장비 활용 지원, 용암해수 활용 해양·해상생물 배양연구, 기업 유치와 벤처기업 창업 지원 등 용암해수산업단지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과 기업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해 왔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용암해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능성 연구와 미네랄 원료 소재화, 제품생산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연구생산 장비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용암해수 기반 미네랄 분리·정제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 높은 음료, 식품, 화장품 분야 시장 영역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고대로기자

25일 제주해비치호텔서 제주포럼 프리컨퍼런스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 MZ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25일 제주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6회 제주포럼의 프리 컨퍼런스(Pre-Conference)가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6회 제주포럼의 사전 행사로서 '2030 청년세대 원탁회의 : Voice from the Young', '청년, 추월의 시대를 추월하다'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1세션에서는 제주연구원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들이 참가하여 ▷일자리 ▷내 집 마련 ▷기후·에너지 ▷참여·권리 등 2030 MZ세대가 겪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의제를 두고 논의하는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추월의 시대' 한윤형·하헌기 저자와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장의 주제 발표와 함께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확립 과정을 빠르게 지나온 현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뙤약볕 아래서 마늘 말리기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주차장에서 지역 농민들이 수확을 마친 마늘을 강렬한 봄볕을 이용해 말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온평항 어촌뉴딜 주민주도 사업 본격

서귀포시, 항만정비 등 추진

서귀포시는 성산읍 온평항 어촌뉴딜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1년도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실시계획, 공사 착공 및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며 지역협의체회의(3회)와 주민협의(5회)를 전개했다.

시는 온평항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42억원을 포함해 총 64억원을 투자해 온평항 정비, 구리통 환경 개선,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 혼인지 테마 꽃길 조성, 야간경관 정비 등을 추진한다. 어업 기반시설 현대화와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을 통해 온평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하효항에는 국비를 포함해 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해 부잔교 설치 및 TTP 보강, 하효광장·유채정원 조성, 해녀 편의시설 조성, 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거멍모살 뉴딜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연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도 해양수산연구원, 6월부터 방사능검사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제주 연안의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생산단계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중금속, 금지물질, 방사능 등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육상양식장 50개소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물질인 세슘, 요오드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해 제주지역 수협을 통해 위판 되는 연근해 어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도 추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능검사 분석 결과는 월 2회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고대로기자

용흥리·건입 현대아파트 민방위시범마을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와 건입동 현대아파트가 2021년 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됐다.

제주시가 선정한 민방위 시범마을은 자연·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착형 생활민방위를 통한 비상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선정된 마을은 가가발전기·양수기 등 마을별 재난유형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고, 실제 재난발생을 가정한 재난대비 훈련을 하게 된다. 훈련비로 마을 한 곳당 500만원씩 지원된다.

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방위 시범마을 44개리를 선정 총 4억2600만원을 지원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전기실무자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 취업처 다수확보 ★
대 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 재직자
교육기간
7월 개강 예정 – 7개월 과정
모집 근시일 마감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 의
064-749-3434
(주)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won.com
제원직업학교
순서 : 전화상담 → 교육신청 ※ 본교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백세표고농장
쉼없이 연구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품질로 다가서겠습니다.
대표 김 호 균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117
H.P 010-3699-7818

조경 · 원예 · 화훼
인테리어 · 건축 · 토목용
화산석(송이)/붉은색, 흑색
중국산 10kg 단위포장(중립 5~10mm, 대립 10~20mm)
백자갈, 회색자갈/오색자갈(어항, 인테리어용)
중국산 10kg 단위포장(20~30mm, 30~50mm)/(5~10mm)
마 사 토
국산 20kg 단위포장(소립 3~5mm, ,중립 5~10mm)
바크(친환경 소나무 바크, 조경용 멀칭재, 원예화분용)
국산 35L 단위포장(중립, 대립)
상토, 산야초, 휴가토, 녹소토, 적옥토, 퍼라이트
덕산조경원예자재(도, 소매)는
도내 최저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P : 010-5568-2936 · T/F : 064)744-8828
E-mail : duksanjo@naver.com · 주소 : 제주시 오광로 194(노형동)